

전남 13개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소 평가 전국 최다...영광군 전국 1위 국비 13억원 등 26억원 확보 노후농기계 확충·교체 계획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남도내 우수 시·군이 전국 최다인 13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전남도는 국비 13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를 포함 모두 26억원을 들여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할 계획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전국 142개 시·군 469개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전문인력 비율과, 발농사 기계 비율, 수요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상위 50개 시·군에 노후농기계 대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가 결과 영광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5개 증가한 13개 시·군이 선정됐다. 선정 지역은 영광과 해남, 곡성, 광양, 보성, 강진, 장흥, 영암, 나주, 화순, 무안, 담양, 순천 등이다.

전남도의 이같은 성과는 매년 10억원 내외를 투입해 임대사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임대용 발농사 기계 지원을 지난 2018년 26억원에서 2019년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내 임대사업소가 영농철 휴일 없이 운영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함에 따라 지난 6월말 기준 이용농가가 12%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감면액이 총 10억원에 달해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4개소(장흥, 고흥, 강진, 해남)가 건축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3개소(순천, 강진, 무안)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사업비로 임대사업소의 노후된 농기계를 농가가 선호한 기종으로 바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올해 6월말 기준 도내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 65개소가 설치돼 1만 2428대의 농기계를 보유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도내 116개 전통시장에 마스크 15만6000매와 손세정제 232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하고 방역수칙 점검

전남도 내일부터 29일까지

전남도는 도내 전통시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이행 실태에 따른 합동점검에 나선다.

최근 전남 인근 타지역에서 전통시장을 통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도

내 116개 시장에 마스크 15만6000매와 손세정제 2320개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될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전남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 방역용품으로 전통시장 방역강화를 위해 특별 지원되며, 시·군별 전통시장수와 점포수에 따라 배분된다.

아울러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7일까지 추석맞이 전남 농수특산물 특별전

전남도와 전남농촌융복합지원센터(전남6차센터)가 오는 27일까지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서 추석맞이 전남 농수특산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와 전남6차센터,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협력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펼쳐질 특별전은 전남지역 식품명인 및 6차산업 인증사업자, 전남 브랜드인 남도미향 등의 주력상품

124점을 선보인다.

'식품명인'은 농식품부에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제조·가공 등의 분야에서 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도내에는 17명의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6차산업 사업자 중 농식품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한 사업자이고, '남도미향'은 전남지사가 추천한 우수 식품 공동브랜드이다.

등도 함께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치매극복의 날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전남형 치매안심마을을 운영 및 폐교활용 치매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기획·추진한 결과 우수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도내 65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 마을운영위원회 구성과 치매파트너 양성, 프로그램 운

영, 치매가구 가스자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진행하며, 치매환자가 지역주민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또 폐교가 된 광양 진상항죽분교를 치매센터로 탈바꿈시켜 올 가을부터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카페운영, 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 주민홍보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이어 제13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극복 비대면 주간 행사'를 9월 한달간 개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생활문화축제 온택트로 즐기세요

내달 8일부터 3일간 순천시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2020전국생활문화축제'를 온택트 주제로 개최하고 순천문화재단에서 기획 전시를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생활문화 한마당 잔치인 '2020전국생활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순천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한다. 2014년 축제가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2019년부터는 지역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순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이 만들고, 모여서 나누고, 모두가 누리고'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문화 속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지역 교류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대표적으로 '집생축(집에서 즐기는 2020전국생활문화축제)'은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공연, 체험, 영상 등을 즐길 수 있고 줌(ZOOM)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생활문화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홈트, 댄스, 노래, 악기 등의 분야별 마스터 클래스를 온라인 중계로 제공한다.

또 집에서 즐기는 생활문화 체험 키트 '소일담꾸러미'를 통해 순천 미니정원을 꾸미는 유튜브 온택트 체험을 할 수 있다. 순천 청년기획자들이 직접 기획한 '놀라워 하니 릴레이'의 에코백 릴레이, 퍼켓볼 챌린지, 문학 릴레이 등은 순천에서 시작하여 전국을 거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사전 홍보 릴레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 외에도 '제1회 전국생활문화밴드 경연대회'가 최초로 열리며 생태문화를 접목한 기획 전시로 순천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뽀빠를 이용한 특별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 용연리 햇빛잡곡 농장에서 (사)한국새농민전라남도회 강제석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새농민전라남도회 임원 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자립·과학·협동의 3대 새농민 정신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새농민전라남도회 임원들을 만나 전남 농정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함평군 대동면 '햇빛 잡곡' 농장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강제석 (사)한국새농민전라남도회장과 김옥섭 수석부회장 등 임원과 강희식 농협전남지역본부

경영본부장 등이 함께 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남농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사)한국새농민전라남도회는 농협중앙회 새농민상을 수상한 1천 466명의 부부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선도농업인으로서 후계농업인 육성,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에 앞장서고 있다.

강제석 회장은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친환경농

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집중호우에 이어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많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131억 확보

전남도가 보건복지부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결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국비 131억원을 확보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장비·차량 등에 대한 기능보강을 비롯 도서지역 순회진료를 위한 병원선

수리비 등을 지원한 사업이다. 농어촌 거주민에게 보다 나은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병원선 대체 건조 및 수리비 등 3건 ▲함평군 월야보건지소 신축 등 시설개선 23개소 ▲물리치료 장비 등의 의료장비 확충 137개소 ▲보건방역 차량 구입 14대 등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도내 무의도서지역 주민에게 무료 순회 진료를 제공 중인 병원선 전남511호의 선체노후에 따른 대체선박 건조를 위해 국비 80억 원을 신규 확보했다. 그동안 전남도가 국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이끈 결과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도비 총 130여억원을 들여 친환경병원선 건조할 계획이다. 구축이 완료되면 섬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